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IP리더 양성하기

홍만표 회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1년도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브랜드파이낸스가 선정한 500대 브랜드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다. 20세기 소비·유통의 시대에서 막강 브랜드로 명성을 날리던 1위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21세기 IT시대에 접어들어 2010년 3위, 그리고 올해는 10위권 밖(16위, 258억 불)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IT기업인 구글(1위, 442.9억 불), 마이크로소프트(2위, 428억 불), IBM(4위, 361.5억 불) 등 IT기업은 IT시대에 편승하여 자사의 브랜드 가치에 날개를 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브랜드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 지식재산에 우리는 왜 가치를 평가하는가?

현대의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제품 그 자체를 평가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첨단특허가 적용이 되었는지”, “에너지 효율은 좋은지”, “제품과 기술이 호환성이 있는지”, “구매후 애프터 서비스(A/S)는 확실한지”, 심지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긍정적인지” 등 보이지 않는 무형요소를 구매의 중요한 결정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석학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문가인 스티븐 영 코라운드테이블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금융·물적 자본보다 지식자본, 인적자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이 가치를 높이려면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국제 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보면,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방향은 더욱 분명한 곳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국내에서 채택되었던 회계기준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장부가격이 아닌 현재가치로 반영한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주주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있는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기업투자의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제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어느정도 수준 일까?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양적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매년 악화되어 '09년 기준 약 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술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다수 기업의 막대한 특허기술 로열티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고품질의 지식재산 획득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로의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지식재산에 대한 질적변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총리실 주도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으로, 동기본법이 제정되면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시작으로 국내 모든 연구개발(R&D)이 양질의 지식재산 성과물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지식재산 중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는 특허청과 소속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인식을 함께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열악한 중소기업내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를 키우는 “IP리더” 육성을 금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산업인력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IP리더”와 같은 지식재산 실무전문가가 실전배치하는 것은 지식재산 중심의 글로벌 시장 환경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IP리더는 금년도 600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5,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소속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식재산 선도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IP리더안내 : leaders.ipcademy.net)

〈참고자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0/28/0200000000AKR20101028066000003.HTML?did=1179m>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02602012369697020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81289>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303181>
- http://www.nrf.go.kr/_prog/gboard/board.php?code=d_020101&linkid=020401&mode=VIEW&no=62621&parentno=62621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0812391266104>

2011. 5 |